

「나눔의 통장」 갖기 “시동”

종리 복지관

소년기장·불우노인등 후원자와 연결... 온라인 예금 속초 복지관은 신문에 이웃돕기 기사화 운동 전개

연말을 맞아 고계 종합복지관들이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색다른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어 화제이다.

개관된지 얼마 안 되는 이들 복지관들은 기존의 불우이웃돕기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과 후원자를 연결시키며, 보다 적극적인 후원을 유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창원 종리종합복지관의 「나눔의 통장」 갖기 운동과 속초종합복지관의 「1주 2가구 기사화」 캠페인이 그것.

종리종합복지관(관장 진홍스님)의 「나눔의 통장」 갖기 운동은 소년소년기장세대, 권모·편부가정, 장애인 및 혼자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 후원자와 통장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이다.

일단 후원자가 생기면 후원할 대상자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다. 통장을 개설한 후 복지관에서는 입금표와 함께 감사의 편지, 그리고 그 지원대상자의 실태를 한 눈에 알리주는 기초조사서를 후원자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후원자와 후원대상 가정이 연결되면 그때부터 온라인으로 입금되는 후원금이 지원된다. 복지관에서는 이미 10주회가 개설 10가정에 지원금이 보내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눔의 통장」은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주부들과 직장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異國의 따뜻한 송년법회」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송년법회」가 「지비의 집」 주최로 지난 18일 종제동 정토포교원에서 봉행했다. 네덜, 베트남 등 동남아 출신 노동자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모두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에 고달리지 않는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 이날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전무용, 어린이연극 네덜전통음악과 무용등을 선보이며 함께 어우러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관원도 속초종합복지관(관장 진홍스님)은 생활이 매우 궁핍한 가구를 지역종합소식지인 실학신문에 게재하는 「1주 2가구 기사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은 지금까지 모두 8가구의 생활상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신문에 난 어려움을 읽은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관원도 속초종합복지관(관장 진홍스님)은 생활이 매우 궁핍한 가구를 지역종합소식지인 실학신문에 게재하는 「1주 2가구 기사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은 지금까지 모두 8가구의 생활상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신문에 난 어려움을 읽은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불교자원봉사단’ 발족

5개 단체 협력 다짐... 의료·방송모니터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봉사활동을 펴 나갈 불교자원봉사단이 발족했다.

제1회 자원봉사시민대회를 수료한 수료생 120명은 지난 15일 출판문화회관 4층에서 △한국비하리회 △한국신문방송감정관리소 △한국 자비약학회 △개안무료학회 보광명회 △최산선우회 등 부문별 불교 자원봉사단 발족식을 갖고 △조진회 없는 지비의 손길 펴기 △사회 문제 적극 해결 △부처님의 깨달음에 바탕을 둔 자비봉사 보살행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봉사대사안 청정행보살은 “불자들은 단합, 큰 힘을 발휘해 어려운 이웃들이 꼭 필요로 하는 봉사단

으로 부처님의 전법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스님 유임

새해 예산 96억원

재단법인 불교방송 이사장에 종하스님이 유임됐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지난 21일 오후 1시 이사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5차 이사회를 갖고 종하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에서 이사장으로 유임시키고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스님을 이사로 영입했다. 설정스님의 이사 영입은 당연직 조항에 따른 것.

이날 이사회에서는 95년도 불교방송 예산 95억7천만원

BBS 지방국 ‘파란 불’

정부보고서, 5개국 개성인의 불교방송 지방국 확대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공보처 산하 선전방송자문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지상파 방송 발전5개년계획」에서 종교방송의 지방국 확대안을 마련, 95~96년에 종교방송의 지방네트워크를 △불교방송과 평화방송은 부산 광주 등 5개 △극동아시아방송은 광주 창원 강릉 등 5개 △기독교 방송은 1,2개의 지방국이나 증계소를 추가 인가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백련문도회는 콘스님의 위상에 걸맞는 사리탑을 조성해야 한다는 문도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5월 이같이 결정하고 그동안 문화재청장인 황수영박사 등의 자문을 얻어 건립계획을 구체화시켜 왔다.

사리탑은 해인사 일주문입구 우측공터에 108평 규모로 세워지며, 공모된 설계도에 의해 97년 완공할 계획이다. 사리탑을 포함한 주변 1천80평의 조경은 동국대 홍광표교수(사찰조경학)가 맡았다.

사리탑설계 공모와 관련 원택스님은 “콘스님 사리탑은 전통을 계승하면서 콘스님의 거룩한 참신사상과 울골은 수행정신이 표현될 수 있는 이 시대의 독창적 기념물이 되어야

송년 미담 복지시설 돕기 5년째 김남규 거사

인천 남동구에서 김남규거사하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로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천태종 인천 연화사 신도회장인 김남규거사(56, 대한상회대표)는 1주일에 한번씩 인천영락원(양로원)과 인천보육원(고아원)에 생선 7상자를 보내는 일을 5년째 해오고 있다.

“영락원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3백여명, 보육원의 아이들이 1백여명이 있는데 이들의



장애종 정상이 아니라서인지 누구보다 정에 민감하다.” 김남규거사는 한때 부산 어시장에서 알아주는 이름있는 사업가였으나 사업실패로 단돈 50만원만 가지고 인천으로 오게 된다. 사업에 실패해 세상의 한 인심을 대하게 되자 오히려 김거사의 부처님에 의지하는 마음은 더욱 돈독해진다.

“이 세상의 물질이 본디 내 것이 아님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물질에의 집착을 놓으니

양로원·보육원에 매주 생선보내 장애아동도 돌봐... “죽는 날까지 이웃과 함께”

생필품이 시에서 나오는데 당시 5백50원정도 밖에 안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파는 생선이나 마늘을 먹고 먹게 하지는 데서 시작된 생선보내기는 5년째 이르고 있지만 김거사는 이를 한자도 거르지 않았다. 또한 원주의 소액에 마을에는 격주로, 남동구의 생활보호대상자인 무의탁 노인 39세대에도 생선을 수시로 보시, 노인들의 반찬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김거사의 보살행은 이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난 92년 북항장애아동복지

시설인 명심원을 우연히 방문해 운영이 몹시 어려움을 알고 후원자로 나서기로 하고, 연화사의 신도들을 설득, 후원회를 결성했다. 당시 30여명이던 후원 회원이 지금은 2백여명으로 늘어났다. 김남규거사는 후원회 회원들과 수시로 명심원을 찾는다.

연화사 청년회원과 함께 원생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빨래와 청소도 같이 한다. 지난주엔 울거울을 따듯이 보내라고 기쁨감을 보시켰다.

“찾아가는 날은 아이들이 몹시 기뻐합니다. 정신박약, 언어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되더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사니 현실이 그대로 보여지고 도리어 사업이 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김남규거사는 부인 정영자보살과 자주 구인사를 찾아 찾아 정진으로 마음을 닦는다.

“크게는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나누는 일에 헌신하며 죽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속)

성철스님 사리탑 조성 설계공모, 해인사입구에 97년 완공

사리탑은 해인사 일주문입구 우측공터에 108평 규모로 세워지며, 공모된 설계도에 의해 97년 완공할 계획이다. 사리탑을 포함한 주변 1천80평의 조경은 동국대 홍광표교수(사찰조경학)가 맡았다.

사리탑설계 공모와 관련 원택스님은 “콘스님 사리탑은 전통을 계승하면서 콘스님의 거룩한 참신사상과 울골은 수행정신이 표현될 수 있는 이 시대의 독창적 기념물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교계의 원로·중진스님과 사부대중이 참가하는 「성철대종사 사리탑 건립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리탑설계 공모 개요는 다음과 같다.

△설계규모는 108평이며 △현장실명은 내년 1월10일 오후 2시 현장에서 실시 △공모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설계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평면도 단면도 모형 등을 내년 4월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02-3411-1701)

당선작 1편에는 삼금 2천만원이 주어지며, 당선작 및 우수작품을 일정한 기간 전시할 예정이다. 사리탑 설계를 현상 공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익금, 거룩한 만남에 중앙불교합창단연주회 성황

중앙불교합창단(지휘자 박법준) 창단기념 연주회 ‘거룩한 만남을 위한 찬불가의 밤’이 지난 19일 인현리호텔에서 1천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도됐다. 이날 공연에서 얻어진 수익금 2천여만원은 전액 불교방송에 기탁됐다.

신원에 감사드립니다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10월15일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실현하기위해 창간된 현대불교에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신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불교는 앞으로도 정법을 이룩해가는 힘찬 목소리로 독자 여러분의 신원에 보답하겠습니다. 희망가득한 새해에도 현대불교와 함께 깨달음의 길을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불기 2539년

성도절 기념 大법회를 부다가야에서..

불자 여러분의 요청에 의하여 '94년에 이어 '95년에도 기획한 성도절 기념 특별상품

94년 1월 2차에 걸쳐 성공적인 성도절 대법회 참가행사를 불교방송(BBS)과 공동주관한 한진관광이 첫 행사에서 얻은 큰 호응과 불자 여러분의 요청에 힘입어 95년 1월 성도절 대법회에 참가하실 기회를 또다시 마련했습니다.

“신심으로 성지를 순례하면 천상계에 환생하리라”
- 부처님 말씀 중에서 -

서울⇄델리 직행(2회)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 운항

일반여행법 등록 제 8호

●1차 : 95. 1. 6~1. 15. (9박 10일)
●2차 : 95. 1. 14~1. 23. (9박 10일)

불교 성지순례 10일	
요금	₩ 1,240,000
경유지	델리, 일리하트 (0-비라시 (0-부다가야) (0-리자르르), 리르, 프르, 자비(0)리, 쿠사나, 가른(0)리, 비라(0)리 (0-리, 이그리, 0-델리 (0-가나) 0
식사	조식 8회(중식 8회) 식사 8회(가나식 3회)
호텔	1급 2인 1실 기준(부다가야 쿠사나리, 비라(0)리, 자비(0)리 1실)

인도 문화여행 10일	
요금	₩ 1,400,000
경유지	델리 (0-비라시 (0-카우라(0) (0-이그리 (0-비라(0)리(0)리, 자비(0)리(0)리(0-가나) 0
식사	조식 8회(중식 8회) 식사 8회(가나식 3회)
호텔	1급 2인 1실 기준

• 상가요금에서 인도, 네팔 비자요금 ₩19,000은 별도입니다.
• 가까운 여행사에 문의해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금 ₩100,000 한일은행 09-09-01106 (주)한진관광
• 정부인가 조건임.

후원 : BBS 불교방송

인도관광성

대한항공

韓進觀光

서울시 중구 불광동 132-4

예약문의: 서울 (02) 726-5750 대전 (042) 252-2034
부산 (051) 463-2115 대구 (053) 254-3001
경주 (054) 745-3070 광주 (062) 228-0041
5771.73 제주 (064) 42-7217